

아쉬움 안고 일상으로...“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연휴 마지막 날 송정역·광천터미널 귀경인과 복직 열차표 대부분 매진...포옹·손인사로 ‘섬섬한 작별’

“이번 설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뵈고 나니 또 금방 헤어지네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광주송정역. 역사 내부는 고향의 정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플랫폼과 승차측 곳곳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손길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역사 안팎은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이며 분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합실도 이른 시간부터 귀경객들로 가득 찼다. 포근한 날씨에 다소 가벼운 차림으로 나선 시민들은 커다란 여행 가방과 종이 쇼핑백, 보냉 가방을 양손 가득 들고 개찰구 앞에 줄을 섰다. 쇼핑백 안에는 부모가 챙겨준 나물 반찬과 전, 과일 상자, 김치통 등이 담겨 있었다.

배웅을 나온 가족들은 출입문 앞까지 따라 나와 “도착하면 꼭 연락해”, “밥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명절이면 항상 그렇듯 이날 서울·수도권행 KTX와 SRT 좌석은 대부분 매진됐다.

현장 발권 창구에는 흑시 모를 취소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일부는 빈 좌석을 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역사 밖 도로는 가족을 배웅하려는 차량이 몰려들며 한때 정체를 빚었다. 경찰과 역 관계자들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하차와 승차가 반복되며 혼잡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서울행 열차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대합실은 더욱 분주해졌다. 승객들

은 서둘러 승강장으로 향했고, 플랫폼에서는 짧지만 진한 작별 인사가 이어졌다. 열차가 서서히 들어오자 몇몇 가족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손을 맞잡은 채 쉽게 놓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창가 좌석에 앉은 자녀를 향해 부모가 연신 손을 흔들자, 자녀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도 일부 가족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선로 쪽을 바라봤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최모씨(34)는 “명절이 아니면 부모님을 길게 뵈기 어렵다”며 “같이 밥 먹고 TV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자주 내려와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씨(23·여)는 “취업 준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집에 와서 푹 쉬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며 “다시 올라가면 바쁘겠지만 이번 설에 받은 응원으로 참고 버티보려 한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

미널도 귀경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대기실 좌석은 일찌감치 만석이었고, 통로에는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길게 늘어섰다. 편의점과 빵집, 분식집에는 간단히 요기를 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다.

서울행 버스 탑승 안내가 나오자 승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승차측으로 향했다. 가족들은 버스 짐칸에 실린 가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창문 너머로 “조심히 올라가라”며 손을 흔들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60대 자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끝까지 배웅하는 노모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딸 김모씨(61)는 “설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왔다”며 “힘드시다면서도 꼭 터미널까지 나오겠다고 하셨다. 자식 걱정은 부모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손녀를 배웅 나온 정순임씨(67·여)는 “명절에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다”며 “손녀 웃는 얼굴 보니 힘이 났다. 다음 명절까지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18일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배웅 나온 가족이 열차에 오른 귀경객에게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설 연휴 광주·전남, 안전·교통사고 속출

영광서 공동주택 외벽 균열... 주민 27명 대피 흥기 위험 60대 검거·담배꽂초 등 화재 반복도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 전역에서 화재와 교통사고, 공동주택 안전사고, 흥기 협박 사건 등이 잇따랐다.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택 외벽 균열로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고 연휴 기간 심야 화재가 반복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다섯날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화재·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45분 화순군 한전면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인력 12명과 장비 4대가 투입돼 18분 만에

진화됐다.

운전자는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 추산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53분 담양군 담양읍 한 도로에서는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당국은 운전 중 갑작스러운 경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튿날 오전 9시10분에는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한 4층 규모 공동주택 외벽 벽돌 마감재가 갈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광군과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 16세대 주민 27명을 인근 숙박시설과 경로당 등으로 이동 조치했다. 당국은 외벽 마감재를 제거했으며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 도심에서는 흥기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은 지인을 흥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2시 30분 광주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서 과거 알고 지냈던 70대 여성에게 흥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은 뒤 앙심을 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흥기에 처쳐 경미한 상처를 입었으나 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휴 후반에는 화재 사고가 이어졌다.

16일 오전 8시26분 광주 동구 금남로 57가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테크와 에어컨 실외기 일부가 소실돼 5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담배꽂초 불씨가 가연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오전 2시53분에는 완도군 완도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으며,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18일 오전 2시17분에는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거주자가 손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 추산 6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재 역시 실내 흡연 후 담배꽂초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범카 부당 사용’ 한전 직원...법원 “해고 정당”

‘대리출근 548일·지각 231회’...“실수 아닌 적극적 기망”

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술 재판장은 한전 직원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감사를 통해 A씨가 지난 2021년 3월10일부터 2024년 1월11일까지 548일 동안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다른 한전 직원에게 알려준 뒤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231회 지각 사실을 숨겼고,

누적 지각시간은 3990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A씨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6월께 해고(해임) 처분했다.

한전은 별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전북지검 남원지청으로 송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각 등이 경미한 과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는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청산 공고

월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3년 06월 08일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 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83조에 따라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2023.07.04.(1차), 2023.09.05.(2차), 2023.11.07.(3차) 3차례에 걸쳐 신문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6. 02. 28.에 청산합을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월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청산위원회
청산인대표 임 요 목

TOTAL DESIGN GROUP



1%의 부족함까지도 디자인 하는 기업 디에스디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 설계 | 환경 디자인 · 설계 | 옥외 경관 디자인 · 설계
조경도 | 3D | 옥 · 내외 사진물 디자인 · 제작 | 서점물 디자인 | 시공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
나주지사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여유정길 45
대표전화 | 062)433-8800
FAX | 062)523-8824

공 장 | 전남 화순군 읍 문버리길 11
E-mail | zp2007@hanmail.net
공 장 | 061)901-8801
자 회 사 |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디기 있도록이 구글하일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웅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